

연중 제 5 주일

기도서 P. 338 B해

제1독서(욥 기 7, 1-4, 6-7)

제2독서(고린전 9, 16-19, 22-23)

복음(마 르 1, 29-39)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 론



무풍지대(無風地帶)

김 태 윤 신부

5년전 신학생 때의 일이다.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한 동료 신학생과 함께 무주 본당의 무풍 공소에 파견되어 교리를 가르쳤다. 이곳이 아마 우리 교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공소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무풍공소에 서도 시오리 가랑 더 떨어진, 경상도 가까이에 온산공소라는 더 작은 공소가 있음을 알았다. 주일을 맞아 나는 그곳에서 공소에절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그곳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곳은 원래 추운 곳이지만, 이날 따라 눈보라가 더욱 매서웠고 무풍(無風)답게 바람도 사나웠다. 한사코 말리는 무풍신자들을 뿌리치고 혼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온산공소를 찾아갔다. 눈보라치는 눈길을 걸으며 나는 돌풍에 휩쓸려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추위에 몸이 떨렸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길을 배웅기가 났고 또한 새땅을 밟는 새로움도 맛보았다.

공소를 찾았을 때 신자들은 놀라며 기쁘게 맞아주었다. 지금도 나 자신 그때를 회상하며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복음에서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 선교는 복음을 공중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는 특정된 곳이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모두들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주께서는 다른 동네를 찾아 나섰다. 물론 그곳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가시덤불도, 눈보라를 만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땅이 있는 것이다. 눈먼이에게도, 귀머거리에게도, 병어리에게도, 가난한이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특히 소외된 이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 우리의 손길을 펴야 한다. 지난 30일 새사제들이 탄생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에 의해 잡혀있는」(필립3:12) 복음 전달자로 새로운 땅을 밟는 사람들이다. 또 많은 신부님들이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새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 자신들이 서로 도우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온갖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사제들과 함께 주님 말씀을 이 동네 저 동네로 전해야겠다. 서로가 노력할 때 무풍지대(無風地帶)에서 무풍지대(無風地帶)로, 평화로운 새땅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근방 다른 동네로 갑시다.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읍니다”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마르코 1, 38)

(원평 본당 주임신부)



새보다 귀한 사람

—정부미값 인상에 부쳐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부문에서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 양등으로 특히 서민층 가계에 부담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물가 문제에 관해 비변이나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박대통령의 언동회견 말씀 가운데 한 대목이다. 「정부는 금년에 물가안정에 제일 주력하겠다」고 밝힌 박대통령은 「도매물가 10%, 소매물가 12% 선에서 억제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는 말씀인가?

또, 경제 6부 장관은 사흘 뒤인 1월 22일에 합동회견을 갖고, 올해 주요 경제 시책은 「① 물가를 안정시키고, ② 민생을 안정시키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정부미값이 오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16.7%가 오르는 것이다. 양정 당국은 이번 조치로 도매물가에 0.1%, 소비자 물가상승에 0.1%등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에는 0.1%라는 표현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쌀은 주식이다. 더구나 정부미는 서민들의 양곡이다. 그런데 정부미를 그렇게 올리다니... 물론, 정부나름으로 이유가 있겠지만, 실문의 표현대로 「국민적 기대를 1차적으로 저버린 것 같다.」

1개에 64만원씩이나 하는 크리스탈 양주병이나 1조(組)에 1백20만원씩하는 삼패인 글라스를 수입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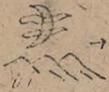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거나 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여주시고, 우리가 새보다 훨씬 귀한데, <오르는 정부미값 격정>이나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인가? (마태오 6, 25-34 참조)

숲 정 이 산책



축! 애기 신부 탄생

□나병환자도 내 형제□



어떤 애정

올해 39세인 윤○○씨, 그는 경상도 시골 어느 부유한 농가의 외아들로 태어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나병이 발병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남몰래 조약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웃 노인들의 증대로 25세에, 키가 훗절할 아내를 맞았다. 벌써 몸속에는 나병이 뿌리깊게 숨어들었으나 외모에 별 표가 없는 그는, 물론 이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막상 결혼은 했으나 그날부터 심한 불안과 고민이 연속되었다. -부인을 죽인 죄책감도 크지만, 혹시나 부인이 알면 어쩌나... 병이 더해져서 아내에게 전염되지나 않을까? - 태산같은 걱정속에 그만 심한 노이로제에 걸렸다. 작게나마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신경을 극도로 쓴 탓인지 걱정했던대로 병은 더 악화되고 거기가 중증결핵이란 합병증까지 생겨버렸다. 때늦은 일이지만, 아내를 위한다면 지극이라도 병이 더 악화되기전에 무슨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 무던히도 애태우다가 결국 그는 아내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적당한 구실이 없었다. 그는 일부터 트집을 잡아 부부싸움도 해보고 못마시는 술을 폭음하여 사고도 저지르며 이혼을 강요했으나 부인은 들어주질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외박을 가장해서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렸다. 윤의 옛 애인이 어디 있다느니... 애기가 몇이라느니... 부인이 생각하니 꽤 심하게 짝이 없었다. 잔뜩 오해한 부인은 양상을 품고 이혼에 합의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 그후 달포 뒤 가까운 장터의 권력층은 부잣집 후처로 재가했다. 그리고 장날이면 날마다 일부터 시장을 배회하며 보란듯이 윤의 앞에 나타났고, 간혹 그의 마을까지 찾아와 으시내곤 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한일이지만 그의 쓰리고 타는 심정이야 말할것도 없고, 사정을 알리없는 주위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오해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내 참마음은 이렇소..."하고 거머리 같이 축을 뒤집어 남에게 보일 수도 없는 그의 심정, 오-! 나의 신체여-! 부인과 헤어지면 마음이 더 가벼울줄 알았는데... 내가 고향을 떠나는데 외에 달리 길이 없구나.

그는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치다 어느날밤, 담뱃점을 메고 정처없이 떠나 지금은 경남 어느 섬에서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운명을 두고 두고 탄식하며 외로운 투병을 계속하고 있다.

-릴리회 78년 6월 회보에서

□릴리회원이 됩시다

릴리회는 나환자를 돕는 단체입니다. 회원이 되고 싶은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630-51 경북 칠곡군 철곡면 읍내동 1140 <릴리회> 520 전주시 서노송동 가톨릭센터내 <인성회> 사무국



S의 편지

S는 나와 죽마고우다. 아니, 그보다 차라리 같은 고통을 나눈 친형제나 다름없다. 그정도로 우린 오랫동안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 왔었다. S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더우기 부모는 나환자였다. 그래서 7세때 그 죄아닌 죄(?) 때문에 정답고 따듯하기만 했던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어느 수녀원의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후 어릴때 떠났던 고향마을을 찾아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의 모든 광경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헤어졌던 12년간의 세월속에 부모님은 심한 불구의 몸이 되어 버렸고 집안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썩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인천과 서울등지로 직장을 옮겨가며 어린 동생들과 기울어진 집안을 돌보았으나 연약한 소녀에게는 역부족이었고 하늘같이 생각하던 부친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날, 실로 오랫동안 서울 S한테서 편지가 왔다. 깜짝 놀라 펴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결혼 문제에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S와 교제중인 청년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으로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가문 좋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는 S를 극진히 사랑했다. S도 내심으론 과분했지만 자신이 나환자의 딸이란 사실 때문에 불안과 슬픔 속에서 당황하기만 했다. 그것도 모른체 그 사람은 S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의 부모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고민끝에 S를 위해 직장과 부모결 마저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S는 자기 부모가 나환자라는 사실등 숨김없이 털어 놓았지만 그래도 그는 더욱 S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S는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의 가정이 불화와 파탄을 당한다고 생각하자 혼자 비장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뜬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일룩진 진진 유서를 썼던것이다. -내일이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렇게도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도다 함께 사라지리라. 왜? 하필이면 문둥이의 딸로 태어났을까?..... 허나, 목숨은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보다. 바로 자살 직전에 그에게 발각되어 다시 살게 되었다. S의 유서를 보고난 그는 S를 위로하며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해요. 부모가 나환자라... 무슨 상관있오? 내가 있는 이상 당신은 결코 죽을 수 없을 것이오" 진실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다.

S의 편지를 거듭 읽고 난 후 참으로 그 사람에게 뜨거운 고마움을 느꼈다. 며칠후 기쁜 소식이 또 왔다. 나의 답장을 받고 S는 누가 뭐래도 우린 백년해로를 한다고 - 하느님, 그들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을 주소서.

-릴리회 78년 7월 회보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도 지정 보일러 시공업체

한국 보일러 설비사

호-스배관, 철관배관, 기름보일러,
시공 및 수리전문
연락처: 이리 8629·군산 3032



1979년, 국제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교황 바오로 6세

국제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본인은 현대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인 의식주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과, 여러가지 폭력적인 사태의 희생이 되고 있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죄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또한 정서적인 방치로 인하여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읍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편견, 공허한 이데올로기로 젊은이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으며,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어린이들의 부패행위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혹사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비한 착취는 흔히 물질적 이득에 눈이 어두운 강력한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진 세계적인 상황에 눈을 돌려 보면 국제 아동의 해에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재하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감싸주기는 커녕 하나의 짐으로 여기고 있으며, 신성한 결혼으로 결합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과 어린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까지를 부인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모든 사회는 어린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권리인 출생권을 수호해야 하며, 부모로부터 응당히 받아야 할 권리를 향유토록, 또한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수호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정신과 목표를 가지고 일함에 있어 어린이들이 더욱 보살핌을 못받고 사회에 탄생되는 출생권이 희생당하는 여하한 계획도 좌절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런고로 교회는 어린이 하나 하나가 인간 인격체이며, 각자 인격완성을 위하여 총체적인 자기 발전을 성취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가정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가정을 떠나서 어린이는 이해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육은 어린이의 신체적, 심리적, 지적, 도덕적 및 종교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노력은 가일층 격려를 받아 마땅하고, 교육은 그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특히 항구하게 베풀어 져야 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의 중심에는 항상 어린이의 위치가 확고히 자리잡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돕는 새롭고도 생동에찬 사업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버림받은 어린이들, 소외당한 어린이들, 신체적으로 불우한 어린이들, 등등의 병대받고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을 구체화 시켜야 하겠습니까.

1978. 6. 18. 로마에서

요심이 (288)



신장 개업 안내

소라의 이름으로
고산 삼거리 舊 유의상실
자리에 새로이 양장점 문을 열
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소 라 의 상 실
이 춘 자(마리아)아림

□ 원아모집 □

성 모 유 치 원

자 격 : 만 5세 이상
기 간 : 2월 1일 - 20일
연락처 : 중앙성당 성모유치원
전 화 : ☎ 6669

◆경운기 · 분무기 ·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개업 안내

시대 중앙동에서, 재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
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회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 사거리)
에 이스 양 복 점

□ 원아모집 □

성 체 유 치 원

자 격 : 만 5세 이상
기 간 : 2월 1일 - 2월 20일
연 락 처 :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 화 : ☎ 8408, ☎ 3231

☆뜻을 사세요

셋 별 의 상 실

서 남 숙(세실리아)
전주시 서서학동 194-5
(서학동 파출소앞 구이가는 쪽)
2 - 0900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파 티 마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리와 제과점 옆)
전화 ☎ 621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제 인사 발령 (1월 30일자, 팔호안은 전임지, 부임일...2월 10일까지)
박성운 신부...휴양(팔마), 김반석 신부...김계주임(여산), 김치삼 신부...해성중교장(월명동), 범석규 신부...사무처장 겸 성심여중교장, 면센타관장(사무처장 겸 센타관장), 김환철 신부...팔마주임(진동), 김병열 신부...전동주임(수류), 이수현 신부...월명동주임(사복국장), 김영신 신부...장인동주임(관리국장), 김봉희 신부...사복국장 겸 센타관장, 평협 신학생, 사제양성 후원회 지도신부, 정평위원장(장계), 김용태 신부...관리국장(청인동), 박창신 신부...여산주임(김계), 정승현 신부...군중대기(중앙), 박중신 신부...군중대기(정읍), 김동준 신부...해성중교장(무주), 강인찬 신부...정읍주임(교장), 이태주 신부...군산오룡동주임(용안), 한봉섭 신부...장계주임(해성중교장), 이준성 신부...수류주임(진동보좌), 김순태 신부...교창주임(운음동보좌), 김준호 신부...사복국 교육·홍보실장(장인동보좌), 현유복 신부...용안주임(휴양), 범영배 신부...팔마보좌(중앙보좌), 유종환 신부...무주주임(팔마보좌), 정태현 신부...중앙보좌(월명동보좌), 조정오 신부...장인동보좌(휴양), 강덕행 신부...월명동보좌(덕진보좌), 김기수 신부...전동보좌(김계보좌), 김종택 신부...면. 정평 위원장
※ 휴양과 군중대기는 교구청 거주
※ 새신부...전동부 신부...덕진보좌, 박병준 신부...함열보좌, 이상섭 신부...주현동보좌, 박성팔 신부...부자보좌, 권이복 신부...운음동보좌, 김성진 신부...김제보좌
2. 군산 오룡동 신실 분당 낙성식...9일<금> 오후 2시, 초대주임...이태주 신부
3. 교리교사 피정...4일<일>~8일<목>, 가톨릭센터, 등록시간...오후 2시
4. 대학생 임원 연수회...10일<토>~11일<일>, 가톨릭센터
- 대성이 전화 성금, 감사합니다 중앙 길거리...1만원, 중앙 방지거 3회...7천원
- 엠네스티(국제사면)강연회...12일<월>오후 7시반, 가톨릭센터, 연사...백기완선생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정승원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법석

1. 프란치스코 3회: 4일<일> 오후 1시 30분
2. 상지회: 7일<수> 오후 6시
3. 보좌신부님들 송별미사: 9일<금> 오전 10시30분
4. 주일학교 개학: 10일<토> 오후 3시
5. 예비자 교리시작: 11일<일>부터
6.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분배합니다
(구역장, 반장님은 사무원에)
- 구라주일 헌금: 219,401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사도회 확대회: 10시미사 후(사도회장님 댁)
2. 성령세미나: 2월 7일<수> 저녁 7시, 시간업수 바람
3. 감사합니다: 새신부님 축하식에 많은 협조에...
- 지난주 봉헌금: 51,445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률

1. 애령회 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반상회 일정안내: 인후동·요셉반·농원반-6일<화> 남노송동·종도반·평화반-7일<수>, 성실반·형제반-8일<목>, 중노송동 2가·백합반-9일<금>
4. 79년도 계획서 제출
아직 금년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회장님은 5일까지 분당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각 반장님들께 알림
각 구역의 반장님들께서는 당해 반의 반적부름 작성하여 당해 반상회에 가져오세요
※ 지난 사도회 확대회의때 배부해 드린 반적부름지를 사용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219,401원

(숲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요안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예비자교리: 매주 화·수 오전 10시
3. 첫 영성체 준비교리: 토·주일 오후 2시
4. 어머니 성가대: 매주<목> 오후 2시
5. 성당 신축기금 수입 다음주 발표
6. 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 1일~20일, 자격 만 4세이상, 연락처: ③9567번
- 지난주 봉헌금: 136,3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환영: 주임신부-김병열(베드로), 보좌신부-김기수(요한), 부임일자-2월 8일 오전 11시
환송: 김환철신부(팔마성당), 이순성신부(수류성당), 환송미사: 7일 저녁 7시, 출발: 2월 8일 오전 10시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8시
3. 레지오 마리에 연춘친목회: 2월 7일 저녁 7시미사후
4. 성화회 환송파티: 5일<월> 저녁 7시
5. 유아세례: 오늘 2시미사 후
6. 성가정 월례회: 월요일 오후 2시
- 구정 봉헌금: 485,000원(주일금 포함) 교무금: 100,30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제
사도 회장 유제상

1. 사도회 월례회: 미사후
2. 예비자교리: 2월 11일부터, 주일학교 개학: 2월11일
3. 강덕행 요셉신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복 신부님 환영합니다
4. 교리교사 연수회: 2월 4일~8일 많이 배우고 오세요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 91,200원
구라주일 헌금: 42,655원
- 지난주 봉헌금: 129,45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중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박인식 형제제)
3. 보좌(박성팔)신부님 부임: 2월 10일, 11일 공식미사후 환영 축하식
※ 보좌신부님 사제관 비품에 다같이 협조합니다
4. 박병준 새 신부님 오늘 10시 미사 집전
새 신부님의 건강과 훌륭한 사제가 되시도록 기도드리고 장복을 받으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5. 학생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67,505원 구라주일헌금: 36,890원
구정합동 미사예물: 150,10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미사때 성경책·기도서·성가책을 지참합니다
1. 사도회 임원 및 구역장회의: 공식미사 후(사제관)
 2. 성령세미나: 68명 참가 매주<화> 오후 7시미사 후, 7주간
 3. 중·고 학생회 총회: 2월 3일 오후 4시미사 후
 4. 부녀회: 2월 11일 공식미사 후(강당에서)
 - 구정 합동 위령미사 예물: 91,500원
구라주일 헌금: 79,485원